

**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제4차 검토 및 평가**  
**(E/CN.5/2023/6, 2022)**

**Fourth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sup>[SEP]</sup>

**Sixty-first session**

<sup>[SEP]</sup>6–15 February 2023<sup>[SEP]</sup>

Item 3 (b) (iii) of the provisional agenda\*<sup>[SEP]</sup>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view of relevant United Nations plans and programmes of  
action pertaining to the situation of social groups: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요약**

본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2020/8에 따라 제출한다. 본 보고서는 2002년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네 번째 검토 및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지역 검토 및 평가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지역 검토 및 평가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동향 및 만연하고 새로운 이슈,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I. 서론

1. 본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2020/8에 따라 “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제4차 검토 및 평가”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다.
2. 보고서는 결의안 2020/8의 7항에서 요청한 대로 회원국이 수행하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네 번째 검토 및 평가의 결론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구조는 2002년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우선순위 방향 및 해당 이슈와 일치한다. 각 지역의 검토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 과정과 과제를 파악한다. 결론과 권고사항은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에 제공한다.
3. 지역위원회가 작성한 전체 요약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fourthreview/regional-reviews.html>

## II. 제4차 정기 지역 검토 및 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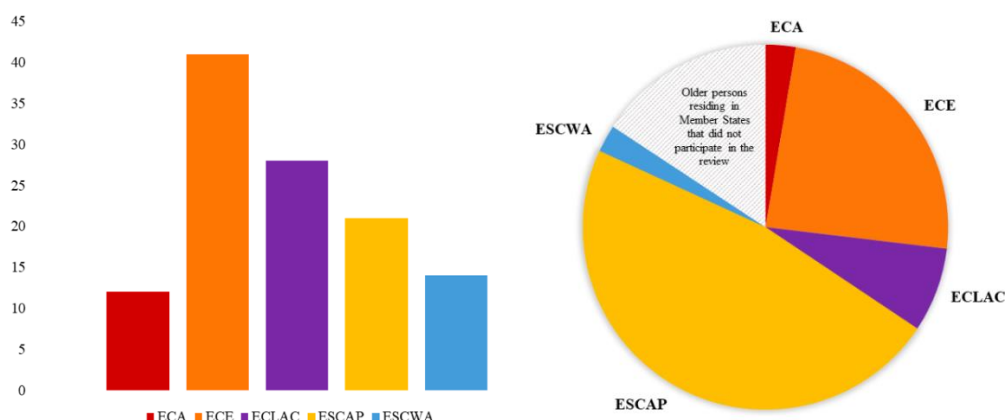
4. 제4차 정기 검토 및 평가는 24개월 동안 1,200만 명 이상의 노인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앓아간(이 중 절반 이상이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 치명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sup>1</sup>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면서 불확실성과 자원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 지역 중 4개의 지역이 제4차 정기 지역 검토 및 평가에 참여했으며, 이 지역들은 전 세계 노인 거주 지역의 84%를 차지한다(그림-1 참조).

---

<sup>1</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excess deaths associated with COVID-19 (modelled estimates)”. Available at <https://www.who.int/data/sets/global-excess-deaths-associated-with-covid-19-modelled-estimates>

**<그림-1>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4차 정기 검토 및 평가에 7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참여(전 세계 노인의 84%, 2022년)**

지역별 4차 검토 및 평가과정에 참여한 회원국 수	4차 검토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한 회원국 지역별 2022년 총 인구(60명 이상)
-----------------------------	---



Source: United Nations, "Total population (both sexes combined) by select age group, region, subregion and country, annually for 1950–2100 (thousand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bbreviations: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2022년 7월 12일과 13일에 지역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 입안자, 아프리카 연합위원회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와 노인을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아프리카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국가 및 지역적 발전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했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2018-2022년 아프리카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4차 검토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5년간 고령화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과 관련된 진행 상황, 그리고 과제 및 떠오르는 문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회원국의 보고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세 가지 우선 영역을 다루고 지역의 특수성과 맥락에 맞게 개발된 설문지와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출처의 가계조사 및 국가 간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2차 데이터의 도움을 받았다.

- 유럽경제위원회(ECE) 상임실무그룹 및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고령화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2022년 6월 16일과 17일 로마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2022년 6월 15일에 열린 제1차 시민사회 및 과학연구 공동 포럼이 있었다. 유럽경제위원회는 접수된 40개 국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2017-2022년(ECE/AC.30/2022/3) 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지역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의 성과와 과제를 보고했다. 유럽경제위원회는 또한 “MIPAA/RIS+20: UNECE 지역의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20년 행동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구현 전략을 위한 20년 이정표를 제시했다. 2022년 로마 선언문과 시민사회 및 과학연구공동포럼 선언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지역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 의제가 설정되었다.

7. 지역 검토 회의를 앞두고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에 위치한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의 하위 지역 사무소는 카리브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2년 10월 19일 “고령화된 카리브해: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년”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보고서를 논의하고 노인 대상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및 국제 통계, 정부 정책, 노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수집된 정보,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하위 지역 검토에서 발생한 권고사항은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및 후속 지역협정 이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5차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고령화와 노인 권리에 관한 지역 정부 간 회의가 2022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8.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020년부터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지역 검토 및 평가를 조직했다. 이 과정은 나이듦에 대한 국가별 책임은 영기관의 지명, 자발적 국가 조사에 따른 협의 및 역량 강화, 비정부 이해관계자와의 네 번의 회의, 그리고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로 구성되었다. 정부 간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검토 과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 과정은 60세 이상 인구의 85%를 대표하는 22개 자발적 국가 조사의 요약물을 포함한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회원국들의 진행 상황, 남은 과제, 격차 및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장기돌봄,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후변화 및 사회보호 등이 미래의 우선순위 분야로 확인되었다. 결과문서는 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9.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는 유엔인구기금 아랍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아랍지역에서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4차 검토를 조직했다. 검토과정은 1년에 걸쳐 완료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는 검토방법론에 대해 회원국과 합의하고 회원국이 국가검토보고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며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조직했다. 검토 과정은 2022년 6월 베이루트에서 열린 지역 검토 회의에서 정점에 다다랐다. 검토과정을 통해 진행 상황을 평가했고, 아랍지역 전반에 걸친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의 격차와 과제를 파악했으며, 새로운 이슈와 성공 사례를 강조하는 지역 검토보고서와 결과문서를 도출했다.

### III. 노인과 발전

#### A. 사회와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10. 노인이 사회와 발전에 참여하도록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정책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이 사회와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와 발전 참여에 방해하는 법적, 사회적, 재정적 및 기타 장애물을 식별 및 이해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모든 지역의 위원회는 노인의 사회 및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보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특정 요인(의도적 참여 또는 소득 창출) 또는 참여를 방해하는 특정 요인(고용 차별 또는 접근성 부족)을 구별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그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재정적 기여를 고려할 때 기여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참여나 기여 부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2</sup>
12. 노인들이 모든 수준의 의사 결정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이행 과정은 지역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법은 모든 지자체에서 노인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노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의 일부 정부는 세대 간 교류를 위해 자원봉사를 장려한다고 보고했다. 아프리카의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분쟁 해결의 역할을 맡아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흔한 일이다. 그러나 노인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잘 문서화

---

<sup>2</sup> Zachary Morris, Jennifer Madans and Daniel Mont, "Measuring the autonom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older peopl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cember 2021.

되지 않는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노인들이 정책 수립 및 검토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노인과의 협의 및 의미 있는 참여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 **B. 노동과 고령화된 노동력**

13. 노동 분야에서 노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하지 않기로 선택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할 수 있고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노인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미래의 새로운 삶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은 노인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14.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노인들이 연금소득이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지역에서는 노인의 노동권의 범위를 설명하고 노인에게 특정한 기준을 제공한다.
15. 유럽 지역에서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 걸쳐 많은 포괄적인 실행 계획이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에는 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시장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국내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에서는 노인 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시책이 보고되었지만, 국가마다 구체적인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노인의 고용기회 증가는 노동력이 감소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 회원국과 특히 관련이 있다.
16. 수명의 증가, 기존 연금제도의 결점, 연금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은퇴 연령을 높여 더 많은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년 연장은 역행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근로자는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보다 연금으로 예상되는 평생소득이 더 적다. 최근 수십 년간 많은 회원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명의 증가가 고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다면, 이러한 퇴행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

이다.<sup>3</sup>

### C. 농촌발전과 도시화

17. 정책입안자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세계적인 고령화의 교차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 대한 회원국의 보고는 제한적이며 다양한 정책 지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정부는 지역발전을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강조하고, 다른 정부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한다. 소외된 도시, 시골 및 외딴 지역의 노인을 위한 인프라 등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보고하는 정부도 있다. 고령의 농민은 비생산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관행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일반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든 지역의 회원국에서 이러한 고령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가 불충분하다. 농촌 지역의 많은 고령의 농민은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

### D. 지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

18. 유엔교육변혁총회(The United Nations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sup>4</sup>는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학습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접근법은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AA)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교육과 관련하여 삶 전체에 걸쳐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고, 연령에 따라 축적된 경험의 이점을 인식하여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19. 모든 지역 위원회는 노인의 지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맥락에서 취해졌다. 노인의 40%가량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부 아프리카 정부는 문맹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마찬가지로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의 노인을 위한 문해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의 문맹률은 여전히 높다. 유럽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노인의 참여율이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유럽 대부분의 정부는 디지털 사용능력(리터러시)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sup>3</sup> World Social Report 2022: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United Nations publication, forthcoming).

<sup>4</sup> <https://transformingeducationsummit.sdg4education2030.org/>

## E. 세대 간 연대

20. 지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간 연대는 세대 간의 사회적 결속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세대 간 연대가 토착 경험 및 지식 전수에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유럽경제위원회(ECE)는 다세대 대화 및 세대 간 학습, 지식 및 기술 이전, 대화형 디지털 기술 교육 및 문화 전달을 포함하여 지역 정부가 수행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인식제고, 사회적 및 종교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1. 그러나 세대 간 연대에 대해 보고된 조치가 사람들의 존엄성, 의견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권리기반접근 방식을 활용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세대 간 연대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가이드는 10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참여, 책임, 비차별 및 평등, 권한 부여 및 합법성의 권리 원칙이 모든 세대 간 활동을 안내해야 함을 강조한다.<sup>5</sup> 이러한 원칙은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중요하며, 세대 간 연대는 서로 다른 세대의 현재 존재하는 세대 간의 관계를 넘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다(참조: A/68/322).

## F. 빈곤퇴치 및 사회적 보호

22. 빈곤의 예방과 감소는 노인들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빈곤율은 지역 간 및 지역 내에서 크게 다르며 종종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및 구조적 격차를 나타낸다. 기후 및 분쟁 관련 위기는 노인의 빈곤 수준을 높인다. 예를 들어 레바논의 경우 위기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비율이 78%에 달했다.
23. COVID-19 팬데믹 위기는 여러 지역 검토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많은 노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험을 높이고 악화시켰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이 해당 지역의 빈곤과 극심한 빈곤이 각각 34.9%와 22.9% 증가하는 것을 완화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24. 회원국은 여러 측면에서 노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용지원은

---

<sup>5</sup> HelpAge International, "Bringing generations together for change: learning from intergenerational approaches to address issues facing older and younger people", 2022. Available at <https://www.helpage.org/what-we-do/society-for-all-ages/bringing-generations-together-for-change>



여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로 보고되었다. 기여 및 비기여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이며 전 세계 정부가 고령화 인구의 기능 및 복지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기본 정책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와 적합성은 지역 간 및 지역 내에서 다양하며 특히 비공식 고용의 발생률과 같은 다른 제도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존 연금 시스템은 종종 성 불평등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 고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 간의 격차를 강화한다는 점이 지역적 검토에서 보고되었다.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은 기여 연금 제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연금에 만연해 있는 성별 격차로 인해 노인여성의 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5.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이 지역의 노인 중 일부만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0년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사회보호 적용 범위는 인구의 17%라고 보고했다(하위 지역 간의 다양한 차이는 구별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 대부분의 회원국은 어떤 형태로든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여연금의 적용 범위는 종종 낮으며 혜택은 매우 다양하다.
26.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의 사회보호 시스템의 개발에는 적용 범위 및 혜택의 확장, 인프라 구축 및 강화, 기여 및 비기여 이전 시스템의 구축 또는 확장, 그리고 돌봄 및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 충족의 현실화 등이 포함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여 연금 또는 비기여 연금을 받는다. 유럽경제위원회(ECE)의 국가에서도 사회보호 제도의 개선이 관찰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적절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 G. 비상상황

2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과정에서 축적되는 여러 형태의 취약성이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상황은 항상 노인을 포함하여 인권 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킨다. 노인은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참조: A/HRC/42/43).
28. 아프리카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며 주로 어린이, 여성 및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일부 회원국은 노인을 위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으며 이는 평가와 계획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질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의 정책 진행 보고는 아직 불충분하다.

29. 유럽경제위원회(ECE)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혁신적인 대응에 대해 보고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에서는 노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30. 아태지역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재해 이후에도 노인의 필요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와 인도주의적 구호 계획에 노인들을 포함시켰다. 소수의 회원국만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있어 노인들의 기여를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에서는 일부 정부가 비상사태에 처한 노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비상대응 계획을 개발했지만, 실제 위기에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IV. 노년기의 건강과 웰빙 증진

##### A. 평생 건강증진 및 웰빙

31.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인 중 45%만이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하며, 약 40%는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지역의 일부 정부는 관련 정책 및 입법 체계를 설립했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 및 인적 자원,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족함, 보고 체계의 부적절성, 아프리카 노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의 부재 등은 정책 실행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보다 포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건강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기관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 B.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32.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 상품 및 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에서는 보편적인 건강보장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이행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에서는 본인 부담의 의약품 구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지역의 여러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자원과 치료에 대한 의료 프로토콜 및 결정에서 노인에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 일부 정부는 노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 지출을 보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33. 아랍 지역에서는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국가마다 상이하다. 이라크는 노인 가족 또는 노인이 있는 가족을 위한 이동식 의료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이 지역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지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몇몇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면 가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보험료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수단은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홈케어 등과 같은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4. 유럽경제위원회(ECE)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일부 회원국은 가정과 교통 서비스에서 노인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35. 완화 치료 제공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여러 지역에서 취해졌다. 정부 외에도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비정부기구들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과 보건 전문가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했다. 유럽의 룩셈부르크는 완화 치료와 임종 시의 의지를 다루는 임종 계획을 포함하는 수명 연장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략 세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 C. 노인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36.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의 불평등으로 인해 HIV에 대한 대응에 진전이 없으며, HIV는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유엔이 제공한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sup>6</sup> 2021년에 약 150만 명의 새로운 HIV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 세계가 목표로 한 수보다 약 100만 명이 더 많은 것이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모두 지난 10년 동안 연간 HIV 감염이 증가했지만, 오직 아프리카 지역만이 HIV에 감염된 친척 및 생존 가족의 돌봄인으로서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HIV 노인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보고했다.

### D. 돌봄인 및 의료전문가 교육

37. 대다수의 의료전문가와 돌봄인은 스스로의 내재역량(intrinsic capacity)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훈련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부문 및 비공식 돌봄인을 포함하여 노인과 함께 일하는 모든 의료전문가를 위한 노인학

---

<sup>6</sup>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In Danger: UNAIDS Global AIDS Update 2022* (Geneva, 2022).

및 노인학 분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정기 검토 및 평가에서는 장기돌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돌봄인에 대한 돌봄 및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조치 중 하나로 돌봄인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7</sup> 돌봄인과 의료전문가의 교육은 노인, 1차 의료 종사자, 가족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웰빙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38.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전문 의료전문가 교육에서 격차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노인병 레지던트를 위한 21개의 훈련소에서 매년 100~150명의 의료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한 반면, 볼리비아와 파나마는 전국에 각각 32명과 35명의 전문가만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랍 지역의 일부 정부는 노인학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프로스, 일본, 몰타, 몽골, 스웨덴 등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돌봄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 호주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인력교육을 통한 디지털의료적용 시책을 도입했다.
39. 유럽의 많은 국가는 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된 시책을 보고했다. 대부분 국가는 적절한 수준의 돌봄 전문인에 도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했으며, 교육을 넘어 근무시간, 보수, 직장의 물리적 조건 및 정신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접근했다.

## E. 노인의 정신건강

40.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전 세계 노인 7명 중 1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sup>8</sup> 많은 국가에서 노인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아프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 지역의 정신건강 장애 및 유병률이 문서화되거나 표면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을 뜻한다.
41. 유럽경제위원회(ECE)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회원국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

<sup>7</sup> Issue 2 under priority direction III (ensuring enabling and supportive environments).

<sup>8</sup>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Global Health Data Exchange. Available at <https://vizhub.healthdata.org/gbd-results/>

한 시책을 채택했다. 유럽지역에서는 외딴 지역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정책이 개발되었는데, 네덜란드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외딴 지역을 순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42.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소수의 국가에서만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보고한다. 아랍 지역의 튀니지에서는 국가적 다부문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기에 빠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노인, 폭력에 노출된 노인에게 건강 및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F. 노인과 장애**

43. 나이듦과 장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위험과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필요에 접근하는데 직면하는 어려움 등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사회에서는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종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 또한 노인의 장애에 대한 연령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국제사회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44.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말리는 더 나은 주거 환경, 접근성, 교통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노인의 삶의 개선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을 도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정부가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재활 서비스와 보조 기술을 제공하지만 이 지역의 소수 국가만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45.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는 노인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시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이 노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쿠웨이트에서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이동 서비스 센터, 장애인 주차 공간, 기관에서의 거래 우선권,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등이 이에 포함된다.

## **V. 노인 활동 증진 및 지원 환경 보장**

### **A. 주거 및 생활환경**

46. 노인 인권 전문가는 포괄적이고 고려친화적인 지역사회와 환경 조성, 노인의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의 의지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 in place)'를 보장하는 국가적 책임에 주목했다. 또한 주택 내 생활 방식의 고려 또한 중요한데, 이는 노인의 직접적인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나타내며 경제적 안녕, 심리적 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9</sup> 노인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이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47. 유럽경제위원회(ECE),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그리고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는 고령친화적 도시, 노인 통합 커뮤니티, 그리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노인 정책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리고 가능한 한 건강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지역은 노인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해 보고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의 많은 회원국이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를 위해 노인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를 위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네트워크(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이 포함된다. 이 지역의 몇몇 정부는 노인의 선호도와 거주 지역 선택권을 고려하여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우선시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의 회원국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서 가족 지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 그리고 노인을 참여시키고 다세대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없이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48.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주택과 관련하여 자원할당, 규제조치 및 비상상황에 처한 노인 지원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주택에 대해 여러 조치를 보고한다. 유럽경제위원회(ECE) 회원국은 또한 주택 개조 및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주택 단위의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예를 보고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에서 경제적 주택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이 음용할 수 있는 식수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는 그들의 건강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sup>9</sup> World Population Ageing 2020 Highlights: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20).

했다고 보고한다.

49. 공공장소는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경제발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유럽경제위원회(ECE) 지역의 많은 정부는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데 진전이 있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에서는 접근 가능한 교통에 대한 조치는 종종 경제성을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회원국은 노인에게 저렴하고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돌봄과 참여를 위해 조성된 공간, 녹지공간 구축, 접근성 증진 등 고령친화적 공공장소 활성화 방안도 유럽경제위원회(ECE),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의 지역 검토에서 다뤄졌다. 접근성의 맥락에서 유럽경제위원회(ECE) 회원국들은 비디지털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노인들에게 디지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 공간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추진을 우선시했다.

## **B. 돌봄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

50. 장기돌봄 및 지원서비스를 포함한 돌봄 업무는 모든 지역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제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발전은 불평등한 재정 및 제도 개발과 돌봄 업무에 대한 문화 및 사회적 기대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지역 간에 매우 불균등하다. 이는 각 회원국이 현재 치료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정책 문제에 반영된다.
51.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와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는 연대와 의무라는 관습적 규범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뿌리깊은 전통문화에 대해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장기적인 보살핌과 지원이 무급 가족 구성원들과 친족들에 의해 집에서 제공되는데, 그들 중 다수는 여성이며 종종 나이든 여성도 있다. 변화하는 가족 및 노동 시장 패턴과 부모 돌봄에 대한 문화적 규범의 변화로 인해, 지역 전체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정부는 비공식 및 공식적인 돌봄인에 대한 인증 및 인가를 포함하여 현금 혜택 프로그램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인에게 지원을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52. 아랍 지역에서는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가족들이 연로한 친척들을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습은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꺼리는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는 노인이 모든 적절한 형태의 장기돌봄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법적 및 정

책적 틀이 간과됨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루는 프레임워크가 거의 없다. 여러 아랍 국가에서 요양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기관과 개인 주택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 및 실행 규범은 없다.

53. 유럽경제위원회(ECE) 지역의 일부 정부에서는 제4차 정기 검토 및 평가 동안 돌봄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새로운 규정, 프로토콜 또는 매뉴얼, 추가 전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기존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장기돌봄시스템 확장, 행정의 효율성 개선, 데이터 사용 개선, 장기돌봄전략의 일환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및 홈케어에 대한 강조가 포함된다. 돌봄인과 주어진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표준 측정 도구 및 그 시행은 지역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경제성과 맞물려 장기돌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몇몇 유럽 회원국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이슈다.
54.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의 검토에 따르면 돌봄시스템 규제, 돌봄인 교육과 장기돌봄을 위한 정책, 완화치료, 그리고 정보등록체계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특히 정보등록체계는 공공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이다. 회원국들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인에게 정보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관, 보건부문 및 대학이 협력하여 인증 체계 및 의료역량강화를 추진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여성(특히 노인여성)의 돌봄 역할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 돌봄인의 비율이 불균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장기돌봄기관 내 팬데믹 통제와 완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 우선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장기돌봄시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프로토콜이 수립되었다.

### C. 방치, 학대 및 폭력

55. 노인은 사적 및 공적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및 방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노인여성, 장애인 노인, 고령의 원주민, 농촌 및 외딴 지역의 노인, 다문화 및 타언어권 사회 안에 있는 노인, 고령의 LGBTQ+는 박탈과 불이익을 일으키는 복합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강제이주와 분쟁 속에 있는 노인과 병원, 교도소, 돌봄시설 및 정신의료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방치, 학대 및 폭력에 더 취약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회원국이 노인 학대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진전을 이룬 정도에 있어 지역 간 및 지역 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법과 정책의 도입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했지만, 정책 이행과 적절한 자원의 제공에 대한 과제는 지속되었고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변혁적이지도 않았다.

56. 아프리카의 케냐는 취약한 노인을 위한 구조 센터를 설립했고, 나이지리아는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통계 시스템 내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데이터 확보를 강조했다.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는 국가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 조정 위원회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57. 유럽경제위원회(ECE)는 이 지역 대부분의 시책이 인식제고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워크숍이나 문화행사를 통해 정보 캠페인 조성, 교육 전단지 발행, 그리고 폭력과 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노인과 교류하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에게 제공되었다. 캐나다와 같은 일부 회원국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더 엄격한 법률을 채택했다.
58.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 일부 국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녀노소의 권리와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사법제도 내에서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연령차별 등 노인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고한다.
59.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는 대부분의 노인학대 사례가 수치심과 침묵의 문화 등의 공통된 반응으로 인해 보고되지 않고, 이는 노인학대를 둘러싼 현실과 문화적 가식 사이에 단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이 지역에서 채택된 메커니즘에는 인식제고, 형사 처벌, 그리고 보고 메커니즘 등이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에서도 진전이 있었지만, 노인보호는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법이나 일반법에 해당하며 노인만을 위한 법적 보호는 없다.

#### **D. 사회에서의 노인과 나이들에 대한 인식**

60.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노인과 관련된 의료, 연금 및 기타 서비스의 규모와 비용 등 노인을 위한 정책의 경제성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그리 건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노인과 나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인권 전문가는 20년 후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노인이 현실 속에서 연령주의(ageism)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참조: A/HRC/48/53).

61.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노인의 다양한 상황과 다층적 이슈에 대한 인식은 정책 입안자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조기술, 개인지원 또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반 시설 및 건축 환경 조성과 같은 노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노인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sup>10</sup> 물론 이러한 방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번 검토를 통해 더 큰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통합된 국가정보전략의 부재가 과제이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부재를 강조한다. 노인은 연령, 성별, 인종, 민족적 배경, 장애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가치는 사회적 및 경제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인정받아야 한다.<sup>11</sup>
62. 아프리카의 세네갈은 노인 조직을 위한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고, 말라위는 지역사회와 전통적인 리더십에서의 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인식제고 캠페인 및 대회, 공개대담과 문화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시책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인에 대한 낙인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63. 아태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노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보고했다. 알제리와 오만을 포함한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64. 지역위원회는 노인과 나이들을 둘러싼 이미지를 포함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미디어에 의해 지속되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 VI. 결론 및 권고사항

65. 인구 고령화는 1982년 비엔나에서 열린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the first World Assembly on Ageing)의 국제 토론에서 각국 정부에 의해 소개되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개별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인구 고령화는 그 이후로 삶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강력한 인구 통계학적 추세로 인식되었다. 20년 전, 159국의 정부는 마드리드에 모여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를 열고 정부, 비정부 기구 및 기타 기구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과감한 의제

<sup>10</sup> Morris, Madans and Mont, "Measuring the autonom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older people".

<sup>11</sup>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6/91](#).

를 채택했다. 오늘날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참여로 시행된 제4차 검토 및 평가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이 글로벌 고령화 분야에서 행동지침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도전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의 원칙과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6. 제4차 정기 검토 및 평가는 24개월 동안 1,200만 명이 넘는 노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이 중 절반 이상이 저중소득 국가에서 발생) 앓아간 치명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팬데믹은 노인이 직면한 여러 위험과 연령에 따른 차별에 의해 노인의 피해가 악화되는 현상을 드러냈다. 팬데믹은 많은 회원국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및 시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제4차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 건설이라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67. 제4차 검토 및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론 중 하나는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 속도, 인구 고령화 문제를 둘러싼 국가 및 지역의 관점, 그리고 각 지역에서 떠오르는(혹은 지속적인) 문제의 구성 등에 대해 지역 간 및 지역 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및 분쟁을 포함하여 팬데믹 및 기타 위기의 복구 노력에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정책과 디지털 혁명에 노인을 포함하는 시책은 현재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가 다루어야 할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빈곤, 취약한 사회보호 시스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 장기돌봄 및 돌봄노동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중심 과제이며 다음 주기에서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5차 검토 및 평가는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의 25주년을 기념할 것이며, 정치적 선언 및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가속화된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해가 될 것이다.
68.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다양한 영역의 이행 과정은 모든 지역에서 보고되지만, 계획의 이행 수준과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도 있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과제 및 도전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지난 세 번의 검토 및 평가에서 확인되었던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 또한 확인되었다.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모든 지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9. 부적합한 국가 기관 및 제도적 메커니즘은 많은 회원국의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의 부족,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부재, 기존 정책의 이

행 실패, 부처 간 협력 및 조율의 부족 등은 노인을 정치적 의제로 삼고 노인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방해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입안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지식과 활용이 제한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정부의 주도하에 주류화해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 및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를 인구 고령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다.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제도적 구조의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 또는 인권 향상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야 한다.

70. 탄탄한 지식 기반과 고품질의 연령별로 세분화된 데이터의 부족은 나이듦에 대한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연령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배포 및 활용하는 것은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구현에 있어서 핵심과제로 남아 있다. 연령의 교차성 및 기타 기준을 통합한 양질의 연령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의 진행 상황을 추적,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필요와 기여 부문을 식별하는데 중요하다.
71.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난 것처럼 나이에 기반한 차별적 태도와 관행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을 위한 국제 및 국가 프레임워크의 구현에 대한 결함을 나타낸다. 노인이 겪는 연령차별 및 기타 불평등과의 교차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노인 집단 중에서도 노인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이주민, 및 LGBTQ+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노인의 상황에 특정한 인권 규범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인의 삶 과정 전반에 걸친 불평등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72.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유엔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하라는 요구는 미래 세대의 관심과 필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포함한다. 2050년까지 노인의 수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수의 3배 이상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젊은이보다 3분의 2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1950년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25년 더 긴 평균 72.3세를 살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 간의 차이는 약 32년이다.<sup>12</sup>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는 정부에 의한 그리고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세계적 합의와 정치적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73.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성공적 이행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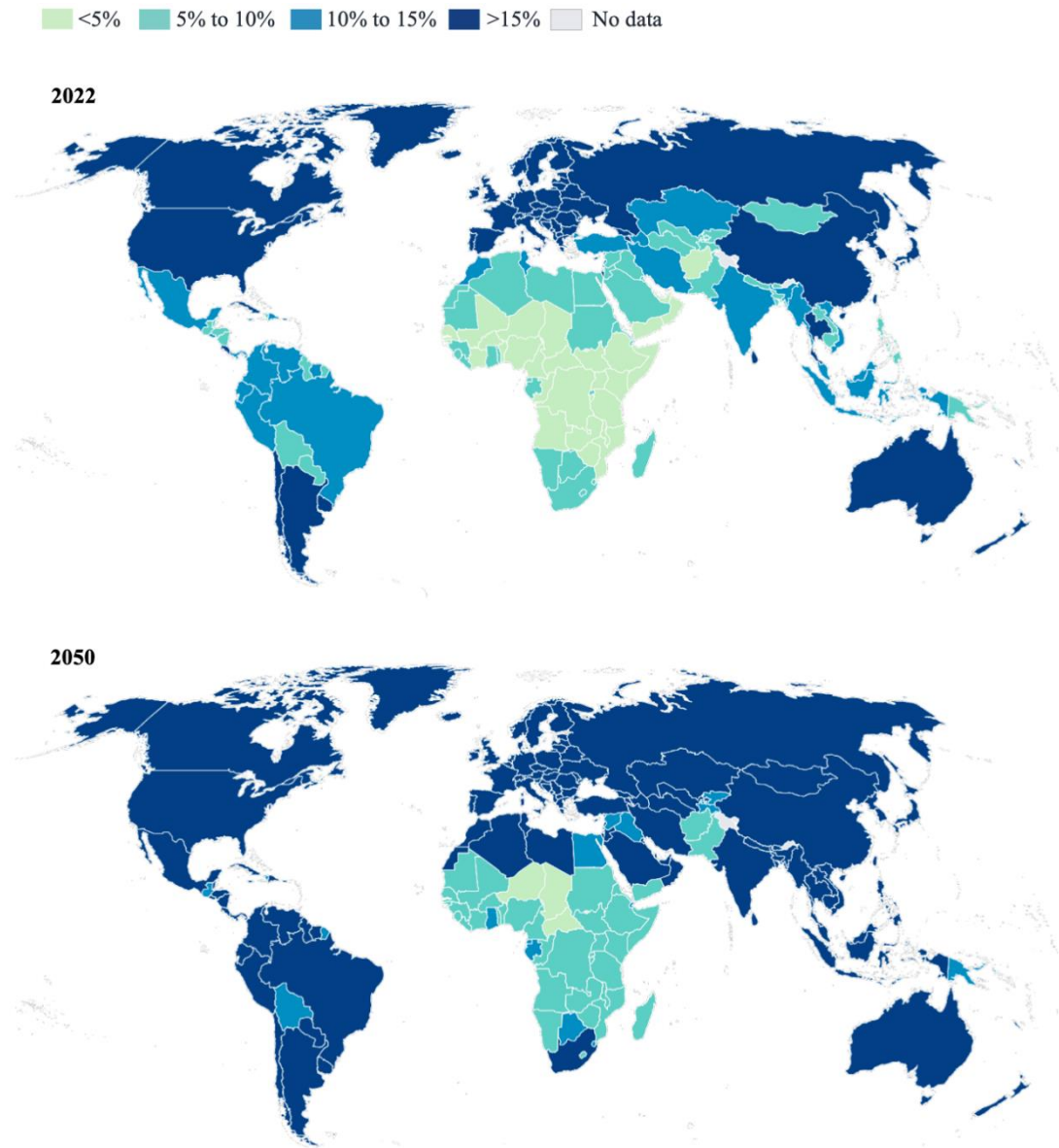
<sup>12</sup>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가전략, 계획, 정책 및 입법은 이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 5년 동안 향상되긴 했지만, 20년 동안 동일한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은 “평소와 다른없는(business as usual)”이란 표현에 걸맞으며, 이는 실패를 의미한다. 제4차 검토 및 평가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정부는 과감한 행동, 규약 시행, 정책 및 입법 확립, 자원의 최적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시행의 극대화 등에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30 지속발전가능 의제 총회는 2030 의제의 이행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의 현실과 노인의 이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4. 지속가능발전목표 총회와 미래계획세계사회 총회는 회원국들이 2030지속발전가능 의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기존 약속을 이행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미래 사회는 노인의 수와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그림-II 참조). 따라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노인들이 발전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20년을 바라보는(하지만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노인들의 인권 향유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인권과 국가적 정책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명확한 정책 계획을 보완하면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및 유럽경제위원회(ECE)지역의 일부 정부가 지역 검토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기구의 출현은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보완 및 강화하고, 후속 정책을 포함하여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완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림-2>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 약 절반의 국가와 지역에서 60세 이상 인구수가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

국가 및 지역별 60세 이상 인구 비율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visualization by the United Nations Operations and Crisis Centre.

Note: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e maps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75.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a) 노인 인구의 변화와 고령화라는 변화로 인한 영향과 결과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집단적 행동 및 정책 결정으로 대응하되,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 25주년인 2027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층을 위한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 (b)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검토 및 평가에서 확인된 모범 사례 및 단점을 고려한다.
- (c) 국제적법적기구개발에 전념하는 노력을 포함하여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협력적으로 노력한다.
- (d) 정부 간 기구 및 회원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나이듦에 대한 이슈를 정책 문서로 주류화 시키며, 지역 검토 및 평가의 결과에서 식별된 우선순위에 따라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을 계속 촉진할 것을 지역 위원회에 요청한다.
- (e)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30 지속발전가능 의제, 유엔 건강한 나이듦 10년계획은 서로를 상호보완한다. 회원국은 각 문서를 보고 및 검토, 그리고 평가할 때 이 계획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 참고문헌

- Cai, F. (2020). The Second Demographic Dividend as a driver of China's Growth. *China & World Economy*, vol. 28, no. 5, pp. 26–44. Borman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1–361.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DOSM) (2020a). *Household Income and Basic Amenities Survey, 2019*.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18).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Asia and the Pacific – Education*.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Education%20report%2018042018.pdf>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22). *Asia-Pacific Report on Population Ageing 2022: Trends, policies and good practices regarding older persons and population ageing* (ST/ESCAP/3041).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22). *Climate Change and Population Age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Stat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olicy Brief 2022/01*.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forthcoming). *The Future of Employment in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Demographic and Labour Market Trends of Ageing Societies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undation of Thai Geront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GRI) (2016). Situation of the Thai Elderly 2016. Available at  
[http://www.dop.go.th/download/knowledge/en1518139087-108\\_0.pdf](http://www.dop.go.th/download/knowledge/en1518139087-108_0.pdf)
- Gu, D. and Dupre, M.E. eds. (2021).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nd Population Aging*. Springer Nature, Cham, AG, Switzerlan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9).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National policy responses in ASEAN +6*. Bangkok: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Unit.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 (ITU) (2022). ITU, Digital Development Dashboard.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Dashboards/Pages/Digital-Development.aspx>
- Liu, T and L. Sun (2016). Pension Reform in China. *Journal of Ageing and Social Policy*, vol. 28, no. 1, pp. 15-28.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NBSC) (1984). *Tabulations of the 1982 Population Census*. Beijing: China Statistics Press. [in 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NBSC) (2022). *Tabulations of the 2020 Population Census*. Beijing: China Statistics Press. [in Chinese]

SingStat (2021a). Labour Force in Singapore 2020. Available at [https://stats.mom.gov.sg/iMAS\\_PdfLibrary/mrsd\\_2020LabourfForce.pdf](https://stats.mom.gov.sg/iMAS_PdfLibrary/mrsd_2020LabourfForce.pdf)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2). Labour Force Survey(総務省統計局『労働力調査』)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 (Last accessed on 28 March 2022).

Statistic Korea (2022).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2021.

Thompson, L. F. and. Mayhorn, C.B. (2012). Aging workers and techn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work and aging*, J. W. Hedge and W. C. Borman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1–36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https://population.un.org/wpp/>

Get connected. Follow us.



[www.unescap.org](http://www.unescap.org)



[facebook.com/unescap](https://facebook.com/unescap)



[twitter.com/unescap](https://twitter.com/unescap)



[instagram.com/unitednationsescap](https://instagram.com/unitednationsescap)



[youtube.com/unescap](https://youtube.com/unescap)



[linkedin.com/company/united-nations-escap](https://linkedin.com/company/united-nations-escap)